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다솜한국학교 졸업식 열려

by KDT posted MAY 22, 2019

캘리포니아 북부(북가주) 서니베일 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에서 지난 18일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생들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2년까지 다솜한국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와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매진했다.

산호세한인장로교회 본당에서 진행된 '2019년 졸업식'에서 강태희, 고유진, 김진주, 배정환, 최하은 학생 등 5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들은 다솜한국학교 재학 시절 찍었던 사진과 자신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재학생들의 인사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이 내용을 나눠 졸업식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특히 동영상에서 졸업생들은 자신이 다솜에서 즐거웠던 소중한 추억에 대해 들려줬다. 어린 나이에 언니가 하는 부채춤을 함께 하고 싶어 배웠던 부채춤,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정체성을 깨달았고, 어린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가르치며 리더십을 터득하게 됐다는 경험들을 전했다.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한 축하 공연으로 어린 학생들이 태권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설날, 추석 등과 전통악기를 배우며 한국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단상에 올라 교장 선생님이 수여하는 졸업장을 받고, 교사들과 악수와 포옹을 하며 졸업의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했다.

재학생 대표로 권민호 학생이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했고, 졸업생 대표로 최하은 학생이 답사를 했다.



<졸업생 대표로 최하은 학생이 다솜한국학교에서 보낸 뜻깊은 시간에 대해 답사를 하고 있다.>

최미영 교장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다솜한국학교에 나와 수업을 받고 졸업까지 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은안 기자>